

## 박주봉 감독과 대화하는 안세영

등록 2026.04.13 19:53:47



[인천공항=뉴스시스] 조성우 기자 = 2026 아시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 단식에서 우승하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안세영이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박주봉 감독과 대화하고 있다. 2026.04.13. xconfind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